

## 국가기록 전시의 의미화에 대한 이용자 수용과 변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User Acceptance and Change upon Exhibitions of  
National Archives

조민지(Jo, Min-ji)\*\*

1. 머리말
2. 국가기록 전시 : 대통령기록 전시를 중심으로
  - 1) 이미지, 기호의 신화
  - 2) 선별된 기억과 설득메시지
3. 국가기록 전시 수용자 연구
  - 1) 연구 문제
  - 2) 연구 과정
  - 3) 결과와 분석
4. 맺음말

---

\* 이 논문은 2015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  
입니다(NRF-2015S1A5B5A07043148). 귀한 논평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학과 강사.

■ 투고일 : 2018년 6월 30일 ■ 최종심사일 : 2018년 7월 15일 ■ 게재확정일 : 2018년 7월 20일

## 〈초록〉

기록은 그 속성이 주는 견고하고 사실적인 능력으로 인해 시각적 이미지를 통한 전시 프로그램에 주요 동원 매체가 되었다. 시각적으로 재현된 이미지는 그 메시지를 소비하는 집단이 개별적으로 수용하여 의미적 이미지로 발화된다. 본 연구는 기록이 사회적 생명력을 갖고 기록의 전시를 통해 돌아오는 것이며 이미지와의 작용을 통해 과거를, 기억을 ‘재매개’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기록의 활용 중 전시를 이용자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전시가 기록을 선별, 배치하는 과정 속에서 그 기관의 정체성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 보일 수 있는 도구이자 매개체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은 국가기록 중 특히 기억 갈등의 중심에 있는 “대통령” 기록 전시를 기억의 문화적 실천 관점에서 분석한 후 이용자들의 실제 전시 관람과 설문을 통해 어떻게 전시 의미를 수용하고 저항하는가에 대한 실증적 연구와 결과를 밝혔다.

**주제어 : 국가기록, 기록 전시, 대통령기록, 대통령기록관, 박정희기념·도서관, 사용자 연구**

## 〈Abstract〉

Records, especially the authentic records the nation secured, have an ontological feature of proof that is able to persuade the current present of the past present, and inherent in it is faith that originates from fundamental objectivity. Therefore the image of silence that such strictness of records creates realizes the detonation of specific memories through the act of visual exhibition.

This research started from the notion that records achieve social vitality and return through its exhibition, as well as the critical awareness that it ‘re-mediate’ the past and memory through interactions with image. The reason for viewing the archival exhibition as the subject of user analyzation is that in the process where exhibition sorts

and arranges records, it is the tool and mediation that most distinctly exposes the identity of the archives.

Hence, this research first analyzes national archives, particularly the exhibition of “presidential” records, which is in the center of memory conflict, in the viewpoint of the cultural practice of memory. Afterwards, it discusses empirical research and results on how users accept and resist the meaning of the exhibition through actual surveys of users after their viewing of an exhibition.

**Keywords : national archives, archival exhibition, presidential records, presidential library and museum, Park Chung-hee presidential museum, audience research**

## 1. 머리말

본 논문은 연구자의 박사학위 논문인 『기록과 기억의 문화정치』의 후속 연구 격이다. 당시 논문에서 이론적으로만 접근했던 “기록 전시 의미화에 대한 이용자 수용”에 대해 한 재단의 지원을 받아 실제적 조사와 분석을 수행하였다. 처음에는 성남 국가기록원 및 대통령기록관, 그리고 박정희대통령기념·도서관(이하 박정희기념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연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채 반년도 되지 않아 박근혜 전 대통령(이하 박근혜)이 파면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대상이 박정희기념관 전시였으므로, 이용자들이 외부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추가 조사를 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재단에 제출한 연구 결과서와 조금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

인간의 보는 감각에 호소하는 ‘전시’란 시각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위로 사전에 정의되지만, 광의의 의미로는 보여주는 모든 것이 전시가 될 수 있다. 하나의 사회 구조는 이념, 행위 그리고 실재 구조로 이루어진 것

이며, 문화는 기호와 상징을 통해 의미를 생산하는 의미화 실천으로 정의한다면, 인간 행위의 문화 영역 전반에서 일어나는 ‘전시’에 대한 이해는 우리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보다 풍부하게 할 것이다.

역사를 소재로 하는 각종 박물관, 기념관, 기록관 등은 역사 문화의 중요한 매개가 되며 타인과 공유하는 기억의 저장소이자 보존소이다. 또한, 보충 가능한 타인과의 기억 공유를 위해 과거를 재현하고, 현재와 미래를 위한 전망과 기대의 근거가 된다. 따라서 끊임없는 정치적 설득과 선전을 필요로 하는 근대 대중사회와 국가에서는 기념물이나 박물관, 기록 전시<sup>1)</sup>를 통해 시각적 이미지의 숨은 설득력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기록<sup>2)</sup> 중 특히 대통령기록<sup>3)</sup>의 전시를 중심으로 수용자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국가기록”이라는 주제와 “대통령”이라는 주제는 개별적으로 바라보아야 하며, 정보의 변화가 아닌 이미지의 변화에 있어서는 서로 비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주제 재현에 대한 접근 방법이 서로 다르고 문화적 표상도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대통령기록관이나 기념관의 전시실은 현실 세계의 객관적 진실 기준이 유동적이라는 것을 전제로, 기호 자체가 가진 내재적 속성을 전략적으로 활용한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우리가 접하는 수많은 담론은 그렇게 조직적인 전략과 전술로 짜여 있을 수 있다. 거기에서 참과 거짓이 같은 공간 안에 공존하고 있으며, 때로는 뿔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양면성을 갖고 착종되어 있다. 이점을 먼저 염두에 두고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 
- 1) “기록 전시”란 매체나 형식과 관계없이 기록을 활용, 목적을 갖고 어떤 내용이나 메시지를 전달하고 보여주는 행위를 뜻한다.
  - 2) 본 논문에서 쓰는 “국가기록”은 매체나 주제와 상관없이 국가 기관에 의해 ‘생산’되거나 ‘소유’한 기록을 뜻한다. 여기에는 공적 영역에서 수집한 사기록도 해당된다.
  - 3) 본 논문의 “대통령기록”은 대통령이 공적·사적으로 생산한 기록과 대통령업무수행과 관련해서 생산된 모든 기록을 의미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논지의 배경에 이어 국가기록 중 대통령기록 전시의 재현 양상을 기억의 문화적 실천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전시 텍스트들이 의미생산을 수행하며 어떤 기호들을 강조하고 또는 배제하였는지를 가늠할 기호적 교환을 추적하였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이용자들의 실제 전시 관람 후 설문을 통해 어떻게 전시 의미를 수용하고 저항하는가에 대한 실증적 연구와 결과를 분석하였다. 맺음말에서는 자본과 권력에서 자유로운 대안적 기록전시의 가능성과 본 연구의 한계에 대해 밝혔다.

## 2. 국가기록 전시 : 대통령기록 전시를 중심으로<sup>4)</sup>

기록의 전시는 단순히 지나간 사실을 담고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공개된 은폐를 통해 기억의 형태와 내용을 매개하고 재매개하게 된다. 다음 장에서 논의할 수용자 연구의 주요 분석 대상이 박정희기념관과 대통령기록관이므로, 여기서는 국가기록 전시 중 대통령기록 전시를 중심으로 그 전시 경향을 알아보고 분석했다. 전시 분석은 단지 사실의 누락이나 왜곡을 지적하는 측면이 아닌, 어떻게 “재현”하고 있고 그에 따른 “효과”는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 1) 이미지, 기호의 신화

기억은 공적 기억, 대항 기억 등 여러 유형으로 존재하며, 특히 다양한 재현 공동체가 주도하는 기념 공간에서는 기념 기억을 공식화하려는 목적으로 재배치 작업을 추구하기도 한다. 지금 살펴보려는 개별형 대통령기록관이나 기념관이 담고 있는 기억은 설립 주체를 근거로 한다면 사회적 합

---

4) 본 장은 선행연구격인 연구자의 박사학위 논문 『기록과 기억의 문화정치』의 3장 2절과 4장 1절, 2절 중 박정희 및 미국 대통령기록관과 관련된 일부 내용을 발췌하였다.

의가 있는 기억은 아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전시 프로그램의 진정성을 위해 국가 기록을 동원하고 심상을 재구성한다. 객관성을 담보한 기록에 내재되어 있는 일종의 ‘물신력’을 이용하고자하기 때문이다. 이때의 국가기록은 다시 신뢰감으로 치환된다. 맥락을 거세한 채 엄연한 사실을 보여주는 전시물 앞에서 기록 전시 수용자는 시각적 믿음이 주는 것과 진실을 혼동할 수 있다.

이때 기록관의 전시물은 그 배치로서 이미 하나의 텍스트를 이루며, 기록물 선택에서부터 이에 대한 언어적 해설과 구성에 이르기까지 각 전시물이 개별 텍스트 역할을 한다. 여기에 복무하는 시각 기호와 언어 기호는 상호 결합하여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배태한다. 그러므로 전시 공간에서 의미 생산과 소비의 과정은 발화자의 사회적 신념에 따른 의미 고정과 확대를 위한 투쟁의 장소라고도 할 수 있다.

한 (영웅적) 인물을 중심으로 하는 대통령기록관과 전시 설계 담당자는 대중이 경도되어 있는 ‘사실의 물신주의’를 잘 이해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록의 증거성이 배태한 과거를 토대로 국가의 미래와 희망을 상상시키며 이미지 확장 프로파간다 전략이 대통령기록관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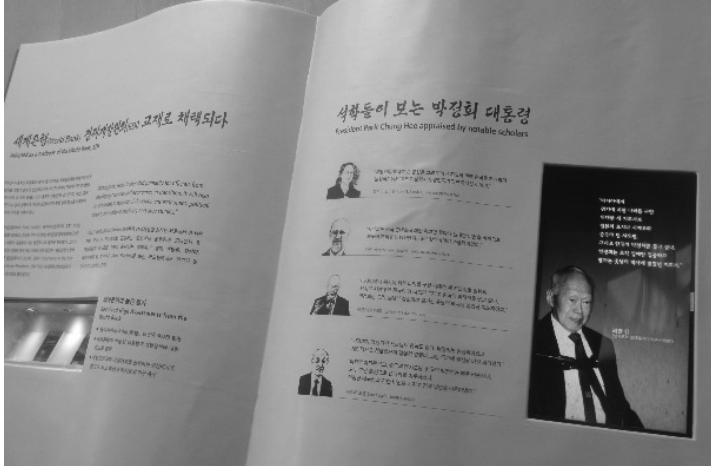
따라서 대통령기록·기념관에서 이미지 발현 방식은 광고 이미지 재현 방식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마르틴 졸리(Martine Joly)에 따르면, 광고 이미지는 숨김이 없지만 적어도 과장되어 있다. 이 숨김없는 이미지는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재빠르게 이해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광고 이미지는 그 구성 원리나 고유한 단위에 있어 다른 어떤 것보다도 과시적이다(Martine Joly 2004, 148). 광고와 심리적 마케팅을 통해 브랜드라고 하는 공허한 속임수에 점점 길들여지고 있듯, 사실적 패티시즘에 물든 사람들에게 기록의 진정성을 내세워 설득 이미지를 발현하는 곳이 대통령기록·기념관의 전시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한국 현대사에서는 풍요로운 전직 대통령문화를 상상하기 어려운

역사를 목도해왔다. 그러던 2012년, 박정희기념관이 건립되었다. 이곳 전시의 텍스트 전략은 직접적으로 방문할 전시소비자들을 이미 표적 집단화하여 분석, 예측하였다는 것에 있다. 영상매체의 이미지를 통한 총체적인 허구성과 잠재의식 차원의 기만을 목적으로 기록을 동원하였다. 예로, 국가기록이 주는 진실한 외양과 엄격하지만 자애로운 아버지 이미지의 박정희 친필이 주는 명백한 설득을 조합하였다. 이로 인해, 주요 전시소비자인 박정희 지지자, 박정희 향수 기대 집단, 박정희의 기억이 없는 집단은 그 허구성의 은밀함을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

박정희기념관은 거머쥔 권력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하는 대신, 전 세계가 그 업적을 인정했음을 주지시키는 세계 석학들의 평가, 영어 교재를 전시관 입구부터 확대 배치하여 권력의 효과를 외부, 특히 서양의 시선으로부터 채우고자 한다.

〈그림 1〉 박정희 기념·도서관 전시관 입구<sup>5)</sup>



5) 사진 출처 : 연구자 촬영.

여기서 세계 석학을 통한 학술적 언어는 마치 개인이 아니라 역사 자체가 발언하는 것처럼 들리게 만드는 효과를 가진다. 즉, 역사가 전해주는 정보가 초월적인 장소에서 나오는 것처럼 독자들을 믿도록 유인하는, 전지적 저자의 권위 있는 목소리를 가지게 한다는 것이다(Lynn Hunt and Joyce Appleby 2013, 317-320). ‘위대한’ 전직 대통령의 불멸의 업적임에도 그것을 외부—세계—의 인정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내러티브 속에는 ‘서구 평가가 주는 안도감’이 배치되어 있다. 한국이 서양의 문명과 시각을 수용한 이래 서구적 시각의 이념 논리가 지배적으로 내면화된 경우라 할 수 있다. 결국, 서구적 시선을 향한 인정 욕구는 애국·애족이 절대 화두로 있는 공간에서 어떻게 무의식적 억압(서양-세계)을 욕망하도록 허락하는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전시관 출구에 있는 박정희기념관 건립위원회 명단 맨 위에는 국고 지원을 함으로써 설립의 물꼬를 텃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하 김대중)의 이름이 있다. 이는 비록 국가수반으로서 적절한 절차와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었어도 결과적으로 기념관에게는 공간에 대한 확증을 심어줄 수 있는 상징 전략이 됐다.

이곳에는 “5·16 혁명은...” “근대화 혁명” 등의 기술을 통해 사실성보다는 공감대에 따른 이미지 관계의 초월성을 도모한다. 그리고 전시소비자의 반응은 투영된 이미지에 대한 것이지 실제, 사실관계에 대한 것이 아니게 된다. 여기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국가 지도자가 이룬 ‘눈부신 업적’을 기호화하는 데에 모든 전시가 집중되어 있다.

이곳 전시실은 영웅적 면모의 엘리트 대통령이 이끄는 조화로운 사회라는 이미지에 더하여, ‘하면 된다’와 같은 이상주의 이데올로기를 생산하는 대담한 기호들의 전시장이기도 하다. 특히 기록 기술의 해석적인 언어 선택을 통해 개인 의식의 현장으로 이끌고 있다. 발톱을 숨기고 있는 사회적 불평등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되는, 과잉 상징에 이미 피로감을 가진 국민들이 있다. 특히 박정희를 전혀 경험하지 못한 세대는 비록 유지한 영웅



화 서술에 공감에 안 될지라도 모든 전시관에서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성공 신화 주입과 반복으로, 최소한의 공명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기호들은 이미지로서의 신화이다. 이미지는 우리들의 일상적인 생활 경험 속에서 '진실'보다 '신뢰성'이 더 중시되도록 영향을 미쳤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시된 내용이 사실인가 하는 것보다는 믿을만한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시실에서는 전달할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 기록이 필요했다. 역사적 맥락을 거세하고 기표로 동원된 사실은 진실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다. 이러한 기호를 통해 대통령과 그 역사적 시·공간은 주로 이미지로 설득하고 상징한다.

국가가 전유하고 계획적인 생산과 조종만으로 이데올로기가 주입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와 사회가 가진 역할, 국민으로서 가진 역할에 대한 무의식적 자기기만과 내면화를 통해서도 이상적 신화 주입은 가능하다. 그것이 반드시 거창한 국가 구호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일상적이고 상식적인 상황에서 주어지는 것임에, 그리고 형식의 차이만을 전제한 반복을 통해 나타난다는 데에 주목해야 한다.

## 2) 선별된 기억과 설득메시지

인간의 의식은 본질적으로 선별의 원리를 갖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기록관과 같이 과거 역사를 새롭게 '전제'하고 전유할 수 있는 도구를 가진 곳은 또 다른 가변적인 현재의 공간이다. 그러므로 대통령기록관은 인간이 의식적으로 가지는 선별의 원리가 의도적으로 실천된, 또 다른 현재가 생산되는 공간이다. 여기에서 선별한 사실이 진실처럼 보이도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중간 과정을 취할 수 있다. 과거의 일시적 굴욕으로부터 다시 일어나 재해석과 재생산의 과정을 거쳐 현재의 공간에서는 간단히 승리자로 만들 수 있었다.

예로, 미국 주니어 부시(George Walker Bush) 대통령의 경우 기록관 건

립 당시 설계 담당자는 “현재의 대통령기록관은 덩치만 크고 허황되다. 두 번의 임기동안 벌인 전쟁 등에 대해 최대한 객관적으로 재현하겠다”<sup>6)</sup> 장담 했지만, 전쟁의 당위성이 전면에 배치되어, 거듭한 두 번의 전쟁에 대해 애써 진심을 꺼내지 않고 있다. 특히 2001년 9. 11 대항 공격 정책의 정당성을 드러낼 내러티브가 전시 중심에 있다. 그 위에 재임 시기에 대해 선별된 기록물은 대통령의 유머 등, 밝고 희망찬 것이어서 주로 미국식 낙관주의 이데올로기를 뒷받침하는 서사를 전면에 배치하고 있다.

〈그림 2〉 케네디대통령기록관 웹사이트 “The President’s Desk” 전시<sup>7)</sup>



미국 케네디(John Fitzgerald Kennedy) 대통령의 경우, 집무실을 인터넷 기반 양방향 전시로 서비스하고 있다. 대통령의 업무일지, 가족사진, 비밀 버튼, 캠페인 사무실, 대통령 재임기간 정보 등을 화면에서 선택할 수 있다. 집무실 책상 위 물건들이지만 그 기의는 대통령의 집무행위를 전제로 한다. 여기서 2차질서 속 재현의미에 진입하면 대통령의 업무능력을 함축하여, 바쁜 일정 속 국가를 위해 봉사한 대통령, 가족을 소중히 여긴 이미지, 재

6) The Dallas Morning News, Mar 15, 2008, “Inside the Bush library, view to a legacy”

7) 사진 출처: 케네디기록관 웹사이트 Interactive Exhibitions “The President’s Desk” 전시 화면 캡처.

치와 유머, 성공한 국가지도자 이미지 속 미국의 힘과 이데올로기가 착종된 신화를 만들어낸다.

덧붙여, “secret recording button” 메뉴에서 대통령의 비밀 음성기록을 기호화하는데 사용된 기표는 베트남 전쟁, 쿠바미사일 위기, 우주 프로그램, 시민권 등이다. 그 중 베트남 전쟁과 관련한 케네디의 업무회의 음성기록에는 베트남전에 대한 전망, 미국이 집중할 수밖에 없는, 전쟁 개입이 최선임을 설파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배치하였다. 미국이 베트남전에 처음 원조를 한 것은 프랑스-북베트남 1차 전쟁이던 트루먼(Harry S. Truman) 행정부 시기였지만 본격적 군대 파견, 전장 투입으로 길고 긴 전쟁이 시작된 것은 바로 1961년, 케네디 행정부의 결정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케네디기록관이 전시물로 조망하는 베트남전쟁에 대한 텍스트 전략에는 베트남전 이전의 미국의 성공 이데올로기와 낙관주의, 국가적 정책실패 등에 대한 기억은 배제되었다.

베트남 전쟁에 대한 텍스트 전략으로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는 전시관은 닉슨(Richard Milhous Nixon) 대통령의 경우가 보다 구체적이다. 닉슨기록관은 닉슨독트린을 시작으로, 실제 베트남 ‘전쟁 철수’에 대한 내러티브를 강화하여 대통령의 ‘결단력’을 기호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How Vietnam became our War”와 “How Vietnam became Vietnam’s War” 두 전시를 통해, 1950년대 트루먼의 결정부터 조망한다.

“트루먼이 베트남을 공산주의로부터 지켜내는 것을 도왔다”는 언표 앞에는 트루먼이 1950년에 베트남에 원조를 시작함으로써 미국이 개입을 시작하게 되었음에 대한 정보를 먼저 주고 있다. 차례로 아이젠하워, 케네디, 존슨 등의 전직 대통령들을 기표로 배치한 후 ‘decided’, ‘reflected’, ‘prevented’, 와 같은 언어기호로 베트남 전쟁 책임 정도를 드러내었다. 닉슨의 ‘decision’이란 어휘를 바로 다음에 배치하여, 닉슨의 결단력으로 미국이 베트남전에서 손을 떼게 되는 과정을 기호화하는데 극적 대비구조가 되었다. 이로써 닉슨의 용기와 판단력, 국가정책운영 능력에 대한 신화적 기호를 생산해낸다.

닉슨기록관의 기호와 내러티브는 이전의 닉슨 이미지와 단절하고 1971년 이후, 보다 인간적 이미지 구축을 위한 RN 프로그램(Richard Nixon Human Interest Story Program)의 연장선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담론의 조작은 거짓을 위한 수단인 것과 동시에 진실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도 사용된다. 그런 의미에서 텍스트 전략은 담론조작의 결과이며 이때 조작이란—반드시 부정적인 굴절만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전제의—발화자의 ‘의도’를 의미한다.

그러나 박정희기념관에서는 사건이 아닌 업적 중심으로 내러티브가 갖춰져 있다. 그러다 보니 과도한 자기의식으로 관람자에게 허구적인 이분법적 물음까지 제기하고 있다. 이곳에서 가장 많은 비중으로 다루고 있는 1960~70년대 전 국민의 정신 개조 운동이었던 새마을 운동에 대한 전시를 예로 들어 보기로 한다. 여기서는 “선의의 경쟁으로 추진된 새마을 운동”이라고 전시 테마를 붙였지만, 그저 선의의 경쟁으로 추진 가능한, 그것도 ‘국민정신’ 개조 운동이란 있을 수 없다. 새마을 운동 전시의 내러티브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박정희기념관 ‘새마을운동’ 전시 내러티브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박대통령이 직접 구상하고 진두지휘한 불멸의 국민운동</li> <li>2. 최초 지급 자재로 성과 낸 마을에 추가 지원하는 마을 간 경쟁</li> <li>3. 농촌마을 단위에서 시작, 도시로 확대된 전 국민의 정신 개조 운동</li> <li>4. ‘하면 된다’는 신념과 의욕으로 잠재된 협동심과 공동체 의식이 살아나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li> <li>5. 세계가 인정한 대한민국 고유브랜드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등재 고유어)</li> </ol> |
|---|

한국과 같은 강력하고 제왕적인 대통령 중심 국가에서 ‘대통령이 직접’ 구상하고 진두지휘 했다는 것만으로도 국가의 강제성을 전제한다. 국가가 억압하기는 하지만, 새마을 운동의 ‘하면 된다’ 같은 신념 속에서 국민 모두가 잘 살 것인가 아니면 이전처럼 굶주리고 가난하게 살 것인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물음을 여기서 제기하고 있다. 이것은 들뢰즈(Gilles Deleuze)가 말하는 ‘공포의 작동방식’이라는 허구적인 이분법과 궤를 같이 한다. 즉, 권력자가 가진 가치의 작동 방식에 대하여 반드시 수동적으로 무언가를 택하게 하는 내러티브 구조이다. 이러한 정서를 전제로 한 환상적 이분법에 의해 작동되는 것은 양자택일 이외 다른 삶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다. 이것은 선택지가 정말 두 개 밖에 있을 수 없었는가에 대한 진지한 물음을 처음부터 차단하고 있다.

이 전략들은 사회적 계층 구분과는 관계없이,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언어화할 기회나 배움을 갖지 못하는 계층을 주로 겨냥하고 있을 때나 의미 생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결국, 이곳에 선별되어 전시된 박정희 관련 국가기록은 현재의 사회 양극화를 양산한 정경유착 등의 과거는 배제된 채 박정희의 경제 신화를 선전하고 그 시절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기록에 집중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기념 기억을 공고히 하기 위한 문화적 실천인 대통령기록 전시는 일부의 대중적 기대를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전시를 구성하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과거의 기록이 실제로 존재하고 보존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실재성이 현재에 소비되고 다시 재생산되고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인식에 있다. 기록과 기억의 재현이란 현재 시점에 과거를 이해시키고자 하는 전략적 과정의 하나임을 이해하고 과거의 사건과 사람들 사이를 메워 이해할 수 있는 발전적이고 열린 관계가 필요하다.

### 3. 국가기록 전시 수용자 연구

#### 1) 연구 문제

본 연구는 기록이 사회적 생명력을 갖고 전시 활용을 통해 돌아오는 것

이며 이미지와의 작용을 통해 과거를, 기억을 ‘재매개’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 전직 대통령들이 기록전시 텍스트를 도구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은 이미지에 효과를 낸 언어 기호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래서 스스로를 신비화 하며 현재 공간을 상징적 배출구로 만들 수 있었다. 그러므로 지젝(Slavoj Žižek)이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는 객관에 대한 믿음과 상대주의적 시각 둘 다를 온전히 긍정해야 한다. 다시 말해, 무수한 견해 중에는 분명히 진짜로서의 지식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지식은 어떠한 이해관계가 있는 편파적 입장에서만 접근할 수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기록의 활용 중 특히 전시를 이용자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전시가 기록을 선별, 배치하는 과정 속에서 그 기록관의 정체성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 보일 수 있는 도구이자 매개체이기 때문이다. 기록관에서 미리 구성한 내러티브를 통해 이용자가 보다 쉽게 몰입하고 해석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전시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이용자도 그렇게 생각할까? 과연 국가기록 전시를 통해 이용자는 이미지나 인식의 변화가 가능할까? 그리고 전시에 내재된 메시지는 관람의 직접적 경험에 의해 어떻게 설득되고 어떻게 수용될 수 있을까? 이와 같은 연구 문제에 따라 수용자연구를 추진했다. 특히 전시 관람 후 변경된 “심상 이미지”에 대한 조사를 위해 설문 대상은 박정희 통치를 전혀 경험한 적이 없는 대학/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 2) 연구 과정

수용자 연구는 연구자가 진행하던 수업의 일부로 수행되었으며, 관람 및 분석 대상 전시로 2016학년도 1학기에는 경기도 성남시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전시실(같은 층 대통령기록전시실 포함), 2학기에는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박정희기념관의 전시실을 선정했다. 국가기록원 전시 관람은 단체 또는

개별 방문, 박정희 도서관은 개별 방문하였다. 개별 방문 기간은 2016년 3월 22일~4월 27일 중 하루, 10월 1일~25일 중 하루를 자유롭게 선택해서 방문하도록 하였다.

설문 대상은 서울시와 경기도에 소재한 A, B, C 대학교 학생들이었으며, 2016년 1학기에는 44명, 2학기에는 31명, 그리고 1, 2학기 모두 설문에 응한 학생은 9명이었다. 서두에 밝힌 바와 같이 박근혜 탄핵 후에 추가적인 조사를 하게 되었으며, 2017년 1학기에는 동일한 B, C 대학교, 그리고 D 대학교(석사과정생)의 총 89명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하였다. C대학교의 2017년 1학기 수업은 2016년 1학기과 동일한 수업이었으므로 중복되는 수강생이나 설문 대상자는 없었다. 2017년 B대학교의 경우는 두 과목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표 2〉 대상 전시관과 설문 응답자 통계

전시 대상		A대학교	B대학교	C대학교	D대학교
경기도 성남시	국가기록원/대통령기록전시실	8명	21명	15명	-
서울시 박정희대통령 기념·도서관	박근혜 탄핵 전	3명	17명	11명	-
	박근혜 탄핵 후	-	62명 <sup>8)</sup>	14명	13명

설문에 대한 응답은 모두 주관식으로 쓰도록 하였다. 양적 구분을 넘어서는, 심층 인터뷰와 같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기록의 의미화”와 “박정희”에 대해 느낀 점을 충분히 서술하도록 시간과 지면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본 수용자연구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가 결합된 연구 방법을 택했다고 할 수 있다. 앞선 연구 설계에 따라 설문 항목을 다음과 같이 관람하기 전, 관람하는 동안, 관람하고 난 뒤의 3개 영역으로 구성하였으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8) 과목1 설문 응답자 21명, 과목2 설문 응답자 41명, 총 62명.

관람 전	-방문 전 해당 전시에 대한 이미지 -관람을 요청받았을 때 기분, 생각
관람 중	-가장 오래 머무른 장소, 전시 -가장 흥미 있었던 장소, 전시
관람 후	-지금 가장 기억에 남는 전시 구성 -전시물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정보 여부와 영향 -관람 후 떠오르는 시각적 이미지와 신체적 기억 -관람 후 해당 주제에 대한 심상 이미지의 변화 여부와 내용 -변화된 이미지의 지속성과 확장성 -재방문 계획 여부

설문 응답자의 연령대는 2017년 기준 20~30대였으며, 모두 박정희 사망 후 태어난 20대 학생과 20~30대 대학원 석사 과정생이었다. 따라서 전시실 방문이 제도권 교육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박정희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였다. 이를 통해 관람 후 변경된 박정희의 “이미지”가 어떠한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였다.

### 3) 결과와 분석

#### 가. 성남 국가기록원과 대통령전시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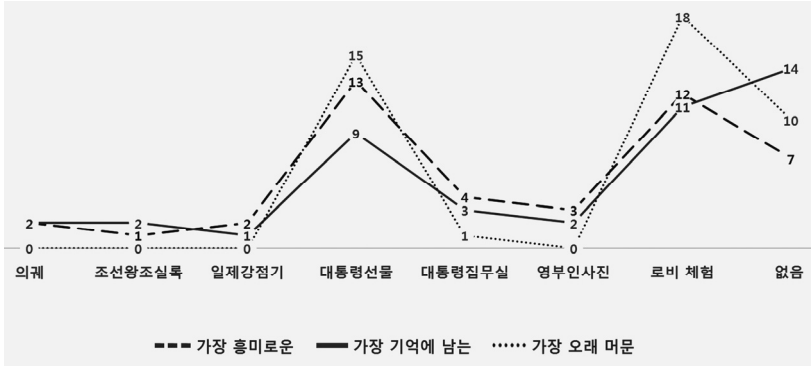
성남의 국가기록원 방문은 앞선 수업 시간을 통해 기록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갖고 있던 상태였다. 설문에 응하기는 했지만 자세하게 답변하지 않은 학생이 많았다.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되었다는 답은 총 44명의 32%인 14명이었으나 다른 설명 없이 “지루했다”, “지겹다”고만 답한 학생도 11%가 되었다. 심지어 당시 건물 입구에서 진행되던 다른 전시가 더 흥미로웠다는 답변도 있었다.<sup>9)</sup> 다시 방문할 의향을 갖고 있다고

9) 전시 관람을 했던 2016년 상반기 성남시 국가기록원 1층에서는 광복 70년 기념 2015 민간기록물전 “나의 삶과 기록, 역사가 되다.”가 전시되고 있었다. 전시 기간은 2015.10.22.~2016.10.21



답한 학생은 단 1명이었다.

〈표 3〉 성남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 전시 관람 후 조사(단위: 명)



성남 국가기록원의 경우는 가장 흥미로운 전시와 가장 기억에 남는 전시, 그리고 가장 오래 머문 전시를 별도로 조사했다. 위의 표와 같이 가장 흥미로웠던 장소는 대통령기록관의 “대통령의 선물”이었으나(44명 중 13명) 가장 기억에 남는 전시는 “없다”는 답이 14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비중이 32%나 된다. 또한 가장 오래 머문 장소나 전시는 전시관 들어가기 전 입구와 출구 사이 로비의 체험 공간 39%로, 18명이었다. 무엇보다도 국가기록원의 경우 방문 후 이미지가 변했다고 답한 학생은 없었다. 또한 관람 후 진로나 사회를 보는 시선에 대해 끼치게 된 영향이 있다고 답한 학생 역시 한 명도 없었다.

따라서 국가기록원이 전시 프로그램을 통해 단순히 정보만 전달하려 했다면 양호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생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전시가 없다는 대답이 가장 많다는 결과나 가장 오래 머문 공간이 (초등학생을 타겟으로 하는) 로비의 체험공간이었다는 답변, 그리고 내부 전시 중 기억에 남거나 흥미로웠던 전시의 비중이 모두 10% 이내인 점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국가기록원에서 가장 호응이 높았던 전시나 장소는 “대통령선물”과 로비의 “체험 공간”이었다. 이 결과는 대통령 선물과 체험 공간을 기록관의 길러 콘텐츠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국가기록원 전시가 기록의 가치를 전파하고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도구로서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전시실의 진부한 스토리텔링은 이용자가 의미 수용의 단계까지 나가지 못하게 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판단된다.

한편으로는 국가기록원이나 대통령기록관의 전시 구성과 결정의 외부성을 되돌아보아야 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미국의 대통령기록관제도와는 다르게 한국은 모든 전직 대통령의 기록물을 한 공간에서 “국가”가 관리하면서 또 모든 대통령의 전시관 기능도 겸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재임 기간과 여타 조건과 관계없이 한국 현대사에 이름을 올린 모든 대통령을 “공평”하게 대하겠다는 객관성의 신화에 의존하고 있다. 공평하다는 것이 공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더욱이 공평함이 진실을 전제하는 것도 아님을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행정부 소속 대통령기록관은 그 전시 내러티브에 진실을 감추고 있는지 아니면 아무 것도 없음을 감추는지 알기 힘들게 하는 욕망과 의미의 배치이다. 그러므로 사실을 순화하려는 욕망은 절제된 표현과 어떤 상상도 어떤 자극도 허락하지 않는 경직된 기록 선별 속에서 오히려, 의미보다는 의도에 따라 진실과 허위의 경계선으로 내모는 형식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 나. 박정희대통령기념 · 도서관

박정희기념관의 경우 국가기록원과 달리 방문 자체에 거부감이 많은

상태였다. 처음 박정희기념관 방문 과제를 들었을 때 들었던 생각을 묻는 질문에,

“오직 찬양만을 목적으로 했을 것 같은 전시관 이미지이지만, 전시 스토리텔링이 잘 구성된 곳이란 이야기를 듣고 한번쯤 방문해도 괜찮겠다고 생각했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대통령이 아니어서 가기 싫다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간다고 마음먹으니 어떤 식으로 박정희에 대해 전시했는지 궁금했다.”

“역사적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일정 세대를 지나는 시간이 흘러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냥 둘러본다는 기분으로 봐야지 생각함”

라고 한 학생들도 있었지만 또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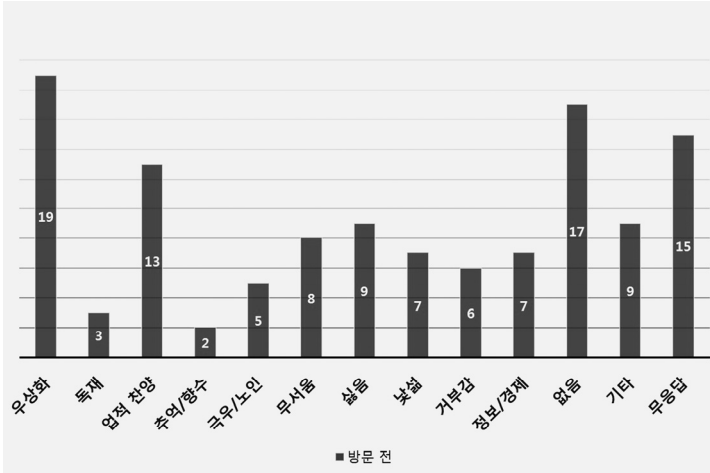
“왜, 왜, 왜, 하필이면 다른 데도 아니고 박정희기념관을 가라고 하는 건지…”

“그동안 몰랐는데 사실 선생님께서 우익이었나?”

“진짜 가기 싫고 시간 아까워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해 봄.”

등을 써 낸 학생도 있었다. 가기 싫음을 반영하듯, 방문 전 해당 전시에 대한 이미지를 쓰라는 질문에 다양한 부정적인 어휘가 나왔다. 주관식, 서술식 답변을 쓰는 형식이었으므로 답변한 어휘들을 비슷한 의미들로 모으고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박정희기념관 방문 전 이미지를 나타내는 어휘들(단위: 명)<sup>1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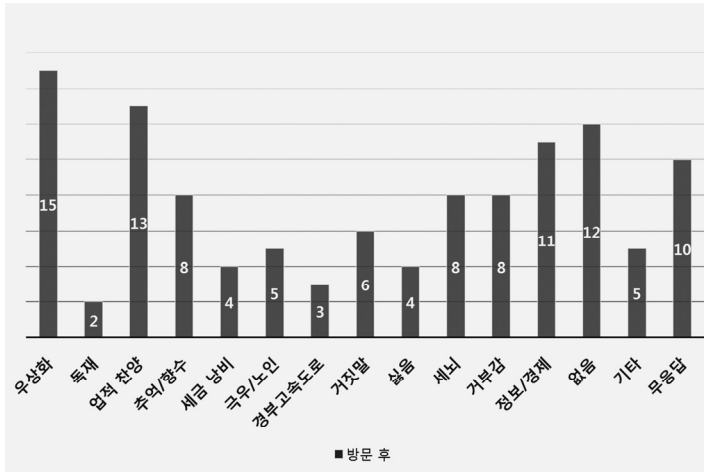
방문 전에 “극우”나 “노인”에 대한 이미지를 갖는 학생들은 언론에서 접하는 박사모나 어버이연합과 같은 단체가 주는 이미지가 겹친다고 답했다. 이후 직접적 전시관 방문 후 “극우”나 “노인”이라고 답한 학생들은 실제 관람 중 만나게 된 단체 어르신 관람객들이 주게 된 부정적 이미지도 일정 역할을 했다고 서술했다. 또 어떤 학생은 노인들을 보며 “추억”이나 “향수”를 떠올렸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답을 한 경우도 있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오래 앉아 한 곳을 지켜보는 것이 인상깊었는데, 그 시절의 분들의 추억이나 기억으로 자리 잡는 공간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와 같은 전시 관람 후 상기되는 이미지에 대한 어휘는 다음과 같다.

- 10) - “없음” 카테고리에는 별 다른 생각이 없는 경우와, 상관없는 경우를 모두 포함했다.  
 - 다수에 포함되지 않는 어휘는 “기타”로 모았으며, 대통령, 박근혜, 영웅, 진부함, 낭비 등이 있었다.

(표 5) 박정희기념관 방문 후 이미지를 나타내는 어휘들(단위: 명)



관람 후에도 여전히 이상화나 업적 찬양에 대한 이미지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정보나 경제 업적에 대한 이미지가 소폭 증가한 것과 다음과 같은 답변은 주목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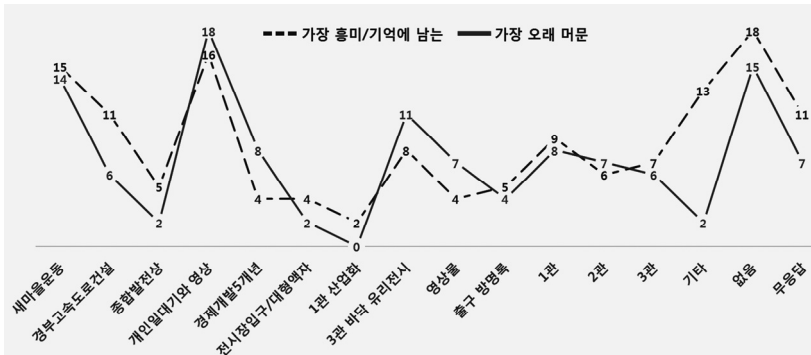
“박정희대통령 시절에 새마을운동을 했다.’같은 큰 덩어리의 정보가 있었는데 ‘새마을운동 때 초가집을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꿨다...’ 같은 세세한 것들을 몰랐다. 전시를 보고 나니 정말 경제발전을 이뤘던 대통령임은 사실인 것 같다.”

“생각보다 박정희대통령의 업적이 제가 모르던 부분도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회에서 지금 누리고 있는 고속도로나 자주 보는 지하철 등, 많은 것이 그 시대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경부고속도로 이미지가 떠올랐다는 3명의 대답도 있었다. 실제

관람 후 가장 기억에 남는 전시도 경부고속도로가 꽤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아래 표로 정리했다.

〈표 6〉 박정희기념관 전시 관람 후 조사(단위: 명)<sup>11)</sup>



박정희기념관의 경우는 가장 흥미로웠던 전시나 장소, 그리고 흥미나 기억과 상관없이 가장 오래 머문 전시나 장소를 답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이 내키지 않으면서 어쩔 수 없이 방문한 탓이 컸던지 기억에 남는 전시가 없다는 대답이 가장 많았으며 무응답도 11명이나 됐다. 전시 자체로는 개인 일대기나 가족과 관련된 영상물이 가장 흥미로웠다고 답했으며 그 다음이 새마을운동 주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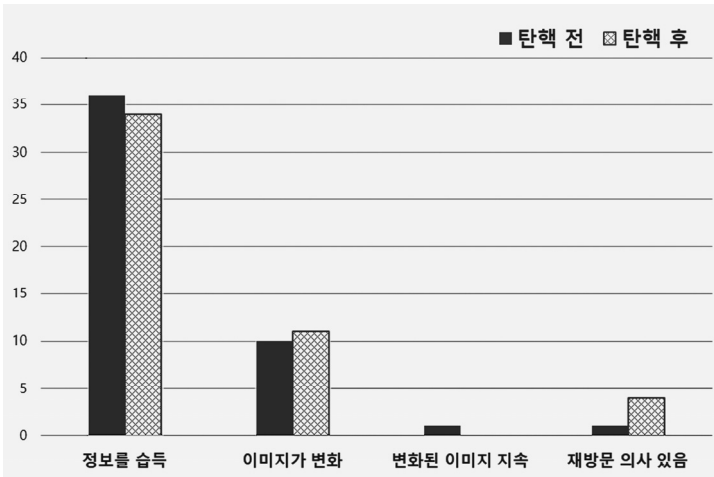
박정희기념관의 경우, 새마을운동,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의 사건 재현에 있어서 대통령이 친필로 직접 자세하게 지시를 내린 국가기록물들이 선별

11) - 박근혜 탄핵 전 31명과 탄핵 후 89명의 응답자를 합한 수치이며, "가장"이 질문이었음에도 두 가지 이상을 답한 경우는 첫 번째 답을 반영하였다.  
 - 2명 이상의 응답이 있는 전시는 별도의 카테고리를 만들었으며, 한 명의 답이 있는 경우는 "기타"로 분류했다.  
 - 1관 산업화, 3관 유리바닥처럼 특정 전시를 지칭한 경우가 많은 경우는 별도의 카테고리를 만들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1,2,3관으로 구분했다.  
 - "없다"라고 분명하게 쓴 경우와 대답을 쓰지 않은 경우는 "무응답"으로 분리해서 정리했다.

되었다. 이 기록들은 전시관에서 적극적으로 배치하는 기록사진 및 영상들과 함께 추가 설명 없이도 대통령의 ‘엄격하지만 자애로운 아버지’ 이미지를 즉각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기호의 집합이다. 맥락은 불분명하지만 사실을 담보한 기록사진과 자의적이고 영웅적 설명은 진실과 허위의 경계 속에서 단지 그 목적의식만 분명히 알 수 있다. 가난을 벗어나 근대화를 이룬 업적만 트로피를 주는 대신, 그 과정의 무수한 폭력과 죽음이 주변화 되고 삭제되어 있다. 그러므로 선별된 기록물은 객관성이라는 외양에 의해 내용이 위장되는 매개가 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개인 일대기나 영상 전시물들에서 제일 오래 머물렀다고 답했던 점은 기록관의 전시 전략이 주효했다라고 분석할 수 있다.

덧붙여, 전시장 출구로 나가는 길에 놓여진 방명록이 흥미롭고 오래 머물렀다고 답한 학생이 꽤 있었던 점은 박제된 전시보다 실제 방문자들의 생각이나 의도, 감상이 더 눈길을 끌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시물 관람을 통한 “정보 습득”과 “긍정적 이미지 변화”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7〉 박정희기념관 방문 후의 변화(단위: %)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박근혜 탄핵 전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되었다는 답은 36%인 11명이었다. 탄핵 후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되었다는 대답은 비슷한 비율인 34%, 30명이었고, 이미지 변화에 대한 대답도 거의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그리고 탄핵 전 재방문 의사를 밝힌 학생이 1명(3.5%), 탄핵 후에는 4명(4.5%)으로 비중은 거의 비슷했다.<sup>12)</sup>

또한 탄핵 전과 후 응답자 중 10%, 12%는 어느 정도의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미지가 지속되었는가의 질문에는 탄핵 전 1명이 유일했다. 이는, 정보를 습득했으나 그것이 새로운 이미지의 형성과 유지에 큰 영향을 주기 못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한편, 영향을 주었으나 “과도한 자기포장”에 오히려 거부감이 들어 부정적 이미지가 더 강해졌다는 의견은 탄핵 전과 후 비슷하게 60% 비중이었으며 다음과 같은 답변을 한 학생들도 있었다.

“생각보다 훨씬 승배 받고 있다.”

“해당 인물에 대한 찬양만 있어서 편파적인 정보에 더 부정적 이미지가 됨”

“기념도서관이 거의 종교적인 수준으로 좋은 면만 보여주어 비판적으로 사고하기 어렵다. 왜 이런 곳이 있어야 하는지 아직도 의문이다. 진심”

“과대포장에 기가 막혔다.

가기 전까지는 별 생각 없었는데 갔다 오니 세금이 아깝고 화가 났다”

---

12) 재방문 의사를 밝힌 4명 중 1명은 전시가 새롭게 바뀌면 다시 찾아오고 싶다고 했다.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부정적 이미지가 오히려 증가했다고 했다. 그러나 관람 후 박정희 이미지의 변화에 대한 다음과 같은 몇몇의 반응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처음 전시장을 찾아가고 구경을 시작할 때는 이 전시실의 목적이 너무도 분명하게 보이고 대놓고 찬양하고 있어서 참 촌스러운 전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전시실을 천천히 구경하고 경제성장 관련 기록과 메시지들을 반복적으로 계속 계속 접하다가 전시관 관람을 마칠 때 쯤 되니, 아 그래도 우리나라를 위해 진짜 열심히 노력한 대통령 이구나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 신기했다.”

“사실 박정희기념관을 방문하는 것은 전혀 내키지 않는 테마였다. 관심도 없었고 독재자 느낌이 더 많아서 지금 와서 무얼 더 알아야 하나 생각했다. 전시관을 모두 둘러보고 난 후의 느낌은 어쨌든 그 당시 가난한 한국을 바꾸기 위해 무언가를 끊임없이 했었다는 것만은 인정해야겠다고 느꼈다.”

비록 “촌스러운” 전략이었다 하더라도 방문자 중 한명이라도 이와 같은 변화가 생긴다면 그 전략은 유효했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대통령기념관들이 뻔히 보이는 수사와 기록을 동원해서 전시를 구성하고 과거를 재현하는 목적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처음부터 방문자 모두를 변화시키고 설득하려는 전략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본 연구자는 앞선 박정희기념관 전시 분석에서<sup>13)</sup> 과도한 허위 의식은 특정 집단 이외에는 수용되지 못할 것이라고 했었지만 잘못 예측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위와 같은 반응은 정치, 사회의 내재적 관계 속 접속 양상들

---

13) 본 논문 17쪽 두 번째 단락 참조. “이 전략들은 사회적 계층 구분과는 관계없이,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언어화할 기회나 배움을 갖지 못하는 계층을 주로 겨냥하고 있을 때나 의미생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표상적·개념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이 기념 공간에서 관람객은 결과적으로 사회구성원으로서 학습된 무의식이나 욕망의 문제를 축적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일찍이 르페브르(Henri Lefebvre)나 푸코(Michel Foucault)가 주장한 것처럼 사회적 공간은 동질적이라기보다는 이질적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사회적 실천 공간으로의 지평 확장을 위해 전시관에서는 역사적 현실과 텍스트를 어떻게 관계 맺기 시킬 것인가가 관건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박정희기념관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박정희 통치를 경험하지 못한 20~30대 학생들은 박근혜 탄핵과 상관없이 박정희 기록 전시를 수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비록 전시관 전반의 과잉 해석으로 부정적 이미지 수용율은 높았지만, 새로운 정보, 새로운 이미지를 새긴 “20대 학생”이 가능했었다는 점은 반드시 주목해야 하는 지점이라고 본다. 박제된 기록 전시가 침묵이나 외면의 이미지로 생성되기도 했지만 사회적 생명이 관여한 기호로도 남았음을 본 연구로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 4. 맺음말

어떤 기록이 선별되어 전시에 활용될 것인가는 이미 탈맥락화를 전제하는 것이며, 선별된 기록물이 여러 이야기로 배치되고 스크립트를 읽는 순간 재맥락화가 된다. 비록 강력한 물신적 증거를 전제로 하는 것이 기록이지만 새로 배치되고 해석되는 과정 속에서 코드와 주관이 심어지고, 그에 따라 어떤 기억은 강조되고 어떤 기억은 은폐된다.

아키발라이제이션(archivalization)<sup>14)</sup>이 함의하는 바와 같이, 과거는 의식적 요소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역사적 혹은 정치적 요소만이 작용하는

---

14) 케텔라르(Eric Ketelaar)는 사회·문화적인 여러 요인들로부터 영향을 받아 아카이빙할 가치가 있는 것을 의식적·무의식적으로 판별, 결정하는 것을 아키발라이제이션(archivalization)이라고 하였다(Eric Ketelaar 2001, 136-139).

것은 더더욱 아니다. 과거는 시간적 간극을 메우기 위해 현재에 다시 소환되며 각종 매체 안에서 재현된다. 이렇게 불러 나온 과거는 다양한 해석과 배치로 사회적이고도 문화적인 기억을 이루게 된다. 그러므로 과거는 결코 자기 완결적이며 폐쇄적인 차원이 아니다. 과거는 현재에 의해 전제되는 것이다.

현재 역시 해석들의 총체에 지나지 않으며,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유동적이라는 에코(Umberto Eco)의 주장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런 의미에서 기념관이나 기록관 전시 내러티브에서 무엇을 배치 혹은 배제하였고 진실이 있든 없었던 상관없이, 진실과 허위의 경계는 처음부터 모호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본 연구에서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과 함께 대안적인 아래로부터의 역사 서술을 통해 기억의 다양성을 드러내는 기제도 다양해졌다. 특히 기록의 디지털화로 이를 통한 사이버 전시나 정체성의 확장이 네트워크를 통해 가능해졌다. 웹 갤러리를 통한 기록전시가 일방적 의미화의 대안으로 각광받을 수 있는 근간에는 결정의 외부성 즉,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억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크다.

특히 디지털 매체는 경험하는 것과 기억하는 것의 방식을 새롭게 바꿔놓고 있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세상을 경험하고 여러 일상적인 일들을 처리하며 그 안에서 타인들과 관계 맺게 되었다. 사람들은 매순간 겪는 경험을 나름 의미 있는 이야기로 만들기 위해 경험의 단편들을 재배치하고 지우는 편집을 한다. 그래서 함께 경험한 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것을 기억하게 된다. 그 기억의 차이가 드러내는 것이 바로 소통의 필요성이다. 민주주의에서 사회적 합의는 만장일치의 개념이 아니라 여러 대안들 간의 경쟁을 통해 다수 의사를 만들어내는 과정과 그 결과를 말한다고 했다(최장집 2010, 251). 기억의 문제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가능한 개별적 기록과 기억을 드러내고 서로 경합, 소통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기억을 만들어 가는 여정에 웹과 네트워크는 분명 일정 역할을 할 것이다.

기록 활용의 과정에서 의미화를 통해 누군가의 인식이 바뀌고 이미지가

변한다는 것은 대단한 것일까 아니면 무서운 일일까? 연대기적으로 앞선 시대의 텍스트들이 문화 속으로 들어와 상호작용하면서 문화가 과거로 전이되고 현재에 영향을 미치며, 다시 역사적 과거의 이미지를 발생시킨다. 그러나 현재로 변형될 때 과거는 그 형태를 변화시키며 이 과정은 진공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이는 결국 기록을 새로운 차원으로 바라보아야 하고 구성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함의할 것이다.

그럼에도 본 연구의 한계는 분명하다. 전시 관람 및 설문 응답자가 자발적이지 않았다는 것에 있다. 과제의 일부로 진행된지라 일정 부분 강제적인 관람 유도였기에 설문에 무응답도 많았다. 특히 디지털 세대인 현 20대 대학생들에게 “박정희기념관”에 그것도 “직접” 다녀오도록 하는 것은 저항감과 무성의한 응답을 각오해야 하는 것이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래의 심상 이미지, 변화된 이미지에 대한 질문에 “무응답”, “없음”의 비중이 가장 높았던 것은 그러한 이유라고 짐작할 수 있다. 덧붙여, 전국의 혹은 다른 지역에서 그리고 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설문했으면 지금과는 또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다. 이러한 한계들과 함께 시작된 연구가 결과 분석까지 이어졌음을 밝히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김운찬. 2002. 기호와 거짓말. 『기호, 텍스트, 그리고 삶』, 9-26. 서울: 월인.
- 김주환. 2008. 『디지털 미디어의 이해』. 서울: 생각의 나무.
- 남수영. 2009. 『이미지 시대의 역사기억』. 서울: 새물결.
- 이동기. 2011. 현대사박물관, 어떻게 만들 것인가. 『역사비평』, 96호, 243-279.
- 전진성. 2005. 『역사가 기억을 말하다』. 서울: 후마니타스.
- 조민지. 2014. 이미지의 시대 기록전시와 사진기록, 『기록학연구』, 제39호, 73-100.
- 조민지. 2014. 『기록과 기억의 문화정치: 국가기록 전시의 기호학적 접근』. 한국의국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조화순. 2011. 『집단지성의 정치경제: 네트워크 사회를 움직이는 힘』. 파주: 한울.
- 최장집. 2010.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개정판). 서울: 후마니타스.

- Barthes, Roland. 1957. *Mythologies*. Editions du Seuil. (이화여자대학교 기호학연구소 옮김. 1997. 『현대의 신화』. 서울: 동문선).
- Boorstin, Daniel J. 1962. *The Image*. (정대철 옮김. 2010. 『이미지와 환상』. 파주: 사계절).
- Hufbauer, Benjamin. 2005. *Presidential Temples*, University Press of Kansas.
- Hunt, Lynn and Appleby, Joyce. 1994. *Telling the truth about history*. (김병화 옮김. 2013. 『역사가 사라져갈 때』. 서울: 산책자).
- Joly, Martine. 1994. *L'image et les signes*, Editions Nathan. (이선형 옮김. 2004. 『이미지와 기호: 고정 이미지에 대한 기호학적 연구』. 서울: 동문선).
- Ketelaar, Eric. 2001. "Tacit Narratives: The Meanings of Archives". *Archival Science* 1(1), 131-141.
- Messaris, Paul. *Visual Persuasion*. (강태완 옮김. 2003. 『설득 이미지』. 서울: 커뮤니케이션 북스).

〈참고 사이트〉

- 경기도 성남시 국가기록원 기록전시실 및 대통령기록전시실(직접 방문), <http://www.archives.go.kr/next/viewMain.do>
-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박정희대통령기념 · 도서관(직접 방문), <http://www.presidentparkchunghee.org>
- G. W. Bush Presidential library and museum(온라인 분석), <https://georgewbushlibrary.smu.edu/Home.aspx>
- John F. Kennedy Presidential library and museum(직접 방문 및 온라인 분석), <https://www.jfklibrary.org>
- Richard Nixon Presidential library and museum(직접 방문 및 온라인 분석), <https://www.nixonlibrary.gov/index.php>